

‘고립된 삶’ 위험한데...도움 요청도 못하고 속앓이만

북구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 동행해보니

“혼자 살다보니 우울해지고 점점 더 밖으로 나가는데 힘들어 지네...”

위기가구로 분류된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인 중장년의 하소연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니 더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광주시 북구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맞춤형 복지팀’ (복지팀)과 동행한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 현장’에서는 1인 가구의 고충을 엿볼 수 있었다.

광주시 5개 지자체는 총선 이후부터 6월 28일까지 본격적인 고독사 예방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50대 이상 1인 가구이자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의 집을 직접 방문해 위험 수준을 살핀다.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도, 오랫동안 서있을 수도 없는 이들은 복지팀을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고 매를 차게 외면하기도 했다.

오전 9시 삼각동의 한 아파트를 찾은 복지팀은 첫 만남부터 허탕을 쳤다. 전날 만나기로 약속한 서모(여·75)씨 집의 벨을 아무리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서씨와 10분 여만에 겨우 연락이 닿았지만 이미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지만 창피해서 병원에도 못 가요”

어렵게 마음 열고 고충 호소

“왜 조사 대상이냐” 불쾌감도

50대 이상 1인 가구·차상위 등

북구, 6월 28일까지 조사

병원에도 갔었다. 이들은 추후 방문을 알리는 스티커만 현관문에 붙이고 집 밖을 나섰다.

통장에 의해 위기가구로 분류된 오모(57)씨는 혼자 사는 데다 체납된 관리비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아 고독사 위험이 적지 않았다.

복지팀이 오씨에게 처음 연락했을 당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쉽게 열어주지 않았다. 수차례 문을 두드리자 겨우 응답을 한 오씨는 가족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않던 “힘들다”는 말을 직원들에게 어렵사리 털어냈다.

자신의 일상에 타인이 개입하는 것을 꺼렸지만 이날은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에도 선택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폐지 수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김모(여·65)

씨는 7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집에서 매트리스 하나에 의지하며 지내고 있었다. 곰팡이 가득한 천장은 눈에 띄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 세탁기와 주방 기구가 한데 있어 음식을 해먹기에도 열악했다.

“몸이 좋지 않아 최근 10kg이 빠졌다”는 김씨는 직원들의 방문에 전날부터 기다렸으며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직원들은 김씨가 보따리 풀듯 털어놓는 애로사항을 듣고 적었다.

김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원 사업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전화로 사전 약속을 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전화를 안받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날 만난 송모(여·81)씨도 약속을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매정하게 내치는 일도 허다하다. 가정방문 약속을 위해 전화하면 ‘와서 뭐 하려고 그러냐’며 적대감을 보이는 건 기본이고, 공무원은 무엇이란 해결해줄거라 생각해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보채기도 한다는 것이다.

무허가 건물을 허가 내달라거나 집 청소를 해달라고 한 뒤 물건이 없어졌으며 도둑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고독사 전수조사 대상이



23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한 아파트에서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고독사 위험가구를 찾아 안부를 묻고 있다.

라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끼고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년층보다 접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진영 삼각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무관은

“가장 중요한 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현장에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통장과 관리소장 등 이웃의 관심과 참여”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보행환경 개선한다고 보행자 안전 ‘나 몰라라’

광주 남구, 천변 보행로 공사 보행로에 자재 쌓아두고 차단

광주시 남구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오히려 보행자를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

남구 건설과는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 흙콘크리트 포장공사’를 발주했다.

노후화로 인해 보행로 곳곳이 깨진 광주천변 보행로와 방림동 일부를 정비하는 공사로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보행자들의 안전통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 등의 이유로 보행자길을 점유할 경우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장엔 노란색 테이프로 40여m를 막아뒀을 뿐이다. 결국 보행자들은 위험천만한 도로를 걸어야 했다.

횡단보도 앞까지 공사 자재들이 쌓아둔 탓에 신호를 대기하는 보행자들도 도로 가까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어야 했다.

남구 관계자는 “콘크리트와 접착제를 혼합해 둔 상태로 현상이 마르면 통제를 철거할 예정이며, 작업을 서둘러 2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



23일 광주시 남구 광주천변의 보행로가 공사로 인해 통제, 한 보행자가 도로 가까이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서 가장 빠른 KTX-청룡 열차 1일부터 운행

광주송정역~용산역 1시간39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KTX-청룡 열차를 신규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KTX-청룡 열차는 최근 개발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다. 차량의 설계속도는 시속 352km, 영업속도는 시속 320km다.

광주에 도입되는 KTX-청룡 열차는 광주송정역과 용산역을 오가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행된다. 각각 오후 4시 8분 용산 출발 및 오후 5시 44분 광주송정 도착 차량, 오후 6시 26분 광

주송정 출발 및 오후 8시 13분 서울 도착 등 총 2편이다. 광주송정역에서 용산역까지 소요 시간은 1시간 39분 안팎이다.

코레일은 기존 주말에만 운행하던 광주송정-용산 KTX를 주중까지 연장해 매일 운행할 예정이다. 또 나주역 상행 KTX를 1회 추가 정차할 방침이다. 광주-서대전을 오가는 무궁화호 왕복 열차도 신규 운행한다. 백양사역에는 상행 ITX-새마을 1회, 하행 무궁화호 1회를 추가 정차할 계획이다.

열차시간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톡 어플이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 지역 스쿨존에 ‘AI 신호등’ 설치

서구 유덕초·상무초 등 4곳

광주시 서구는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4곳에 광주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신호등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 AI 신호등을 설치했다.

AI 신호등이 신설된 곳은 유덕초·상무초·서광초·화정서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구간이다. AI 신호등은 영상 감지 카메라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실시간 인식하고, 전광판에 ‘차량 접근 중’, ‘(차량)속도를 줄이세요’, ‘보행자 주의’ 등 문자와 그림을 보여주며 음성 안내서비스도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갖췄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AI신호등 설치가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서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